

<석유화학 신증설 투자현황>

활황업고 효율성 보완투자 "집중"

94년은 석유화학이 때아닌 호황국면을 맞이해 매우 바빴던 한해였다. Exxon, Enichem 등의 사고와 가뭄으로 인한 용수부족에 따라 공장가동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공급부족으로 전세계 석유화학기업들이 몸살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과잉투자라는 비난과 우려를 자아냈던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 등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공급부족 현상은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공·대림산업 등 석유화학기업들은 공급과잉 여파로 미뤄왔던 증설을 다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사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신규분야 진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경기회복세에 편승해 투자붐이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 투자자유화 "예고"

석유화학기업들은 「석유화학투자지도방안에 따라 규제되고 있는 일부 품목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석유화학기업들은 정부가 석유화학부문의 투자를 더이상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산업부가 공급과잉품목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92년3월 실시했던 석유화학투자지도방안은 95년말까지로 되어 있으나 경기회복이 급속히 이루어짐에 따라 투자규제 해제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석유화학 경기는 95년에 가서야 호전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예상치 않은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94년여름 이후 급속한 호황을 누리게 시작했다. 이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94년여름 이후 석유화학경기가 가열되면서 일부에서는 투자시기를 놓쳤다는 지적과 함께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규제가 풀려야 한다는 것이다. 석유화학생산 세계 5위의 위치에서 정부의 규제아래 있다는 것은 걸맞지 않는 일일 뿐 아니라 그동안의 투자규제 성과가 미미했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현재까지는 NCC(나프타분해공장)의 신규투자는 제한하되 계열제품(다운스트림)쪽은 허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장 수급상황의 변화에 따라 일부 품목의 투자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수요증가로 인해 TPA(고순도테레프탈산)와 SM(스티렌모노머)의 신증설을 허용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동안 국내투자는 수급균형을 맞추기 위해 원료를 자체에서 소화한다는 명분으로 신증설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SM과 TPA에 이어 기초유분 소화를 위해 대림산업, 유공 등에 PE와 PP의 증설을 허용한 것도 예외적인 경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과잉에 따른 경기침체는 투자자유화에도 이유가 있었으나 4~5년을 주기로 반복되던 세계경기 사이클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것이 주된 원인이라 볼 때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결국 통상산업부가 예상했던 수급전망이 빗나가면서 불황이 더 빨리 찾아온 것이 문제였다. 통상산업부는 투자자유화를 할 경우 신규공장들이 94년 이후에나 정상가동돼 수급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의 대규모 콤플렉스가 가동되면서 수급균형이 깨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도록 했지만 공급과잉 현상을 막지는 못했다. 이러한 상태가 되자 통상산업부가 투자규제를 위해 나섰다. 일부품목에만 치우친 규제에 기업들의 반발이 심했다.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업들은 전면 투자허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통상산업부는 93년6월 TPA의 투자규제를 풀었다. 삼성석유화학의 연산 25만톤규모 증설로 투자허

용의 여유가 없었으나 수급상황의 변화를 이유로 대한화섬, 고려석유화학, 삼남석유화학에 연산 60만톤규모의 신증설을 허용했다.

또 94년 들어 통상산업부는 삼성종합화학에 전량 수출한다는 조건하에 SM증설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95년까지 공급과잉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신규투자를 양으리라던 당초의 계획과 다른 것이다.

석유화학업계는 정부의 투자지침 시한인 95년말 이후에는 석유화학부문의 투자가 자유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화·개방화시대에는 석유화학 투자정책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과잉투자의 조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회를 마련하는 등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따른 정부의 입장은 석유화학 투자자유화와 관련,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합성수지 및 합성원료 등의 투자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돼 NCC(나프타분해시설)에 대해서만은 적정투자를 위한 규제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산업부는 석유화학산업을 국내외 수급상황과 품목간의 연계성 및 대외경쟁력을 고려해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신증설을 유도한다는 방침하에 석유화학투자에 대한 조정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산업부는 석유화학의 가장 기초적인 원료인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NCC의 경우 원료와 제품간의 균형상 적정투자지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LDPE, HDPE, PP, PS, ABS, PVC 등의 합성수지와 카프로락탐, TPA, EG와 같은 합성원료 등에 대해서는 원료조달과 수출을 포함한 시장확보 차원에서 자율적인 투자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관계자들은 NCC에서 생산되는 기초유분이 합성고무, 합성수지, 합성원료 등 2차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NCC시설에 대한 신증설이 자유화되지 않고서는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자유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92년3월 주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투자지침을 통해 그동안 신증설을 억제해 왔으나 최근 세계화에 따른 산업정책의 변화에 따라 전면적인 자유화를 예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상산업부는 일부 품목의 투자지침 규제를 풀고, 수급상황의 변화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5년 석유화학투자 94년대비 147% 증가

94년 석유화학분야 설비투자는 93년 4522억원에서 13.5% 증가한 5134억원이었으며 95년에는 94년대비 147% 증가한 1조2696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94년의 경우 설비투자 실적이 당초 목표인 7813억원의 66%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동기별로는 설비능력 증대를 위한 투자가 94년은 3440억원으로 전체의 7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95년에도 이와 비슷한 비율로 867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투자 점유율은 95년에는 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자자원 조달실적 및 계획상 외부자금조달 의존비율은 94년에 3620억원으로 71%를 차지한데 비해 95년에는 7807억원으로 61%를 점유, 94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95년의 상·하반기 투자계획을 보면, 상반기 5990억원으로 47%를 차지하고, 하반기에는 6706억원으로 53%를 차지해 균등한 투자양상을 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94년 설비투자 실적을 93년과 비교해 보면 93년 계획이 6294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4522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94년에는 7813억원 계획에 5134억원으로 당초 목표에 크게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투자실적을 보면 현대석유화학이 93년 203억원에서 576억원으로, 삼성종합화학이 400억원에서 812억원으로 신증설과 관련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호석유화학이 93년 150억원에서 94년 298억원으로 98%, 호남석유화학이 111억원에서 150억원으로 35%, 동서석유화학이 52억원에서 54억원으로 4%, 고려종합화학이 10억원에서 40억원으로 4배, 고려석유화학이 114억원에서 590억원으로 5배, 미원유화가 175억원에서 240억원으로 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화종합화학은 93년 1933억원에서 1381억원으로 29%, 대림산업은 905억원에서 626억원으로 31%, 코오롱유화는 139억원에서 129억원으로 7%, LG석유화학은 170억원에서 162억원으로 5%, 동양나이론은 160억원에서 76억원으로 투자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석유화학기업 투자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프 로젝트	사업기간	총투자비	1993	1994	1995
현대석유화학	합성고무공장 신설(8만2000톤)	1994-1996	893	-	140	753
	SM공장 증설(20만톤)	1995-1996	1,010	-	-	100
	MTBE공장증설(10만톤)	1994-1996	147	-	8	116
	PILOT PLANT 신설	1994-1995	66	-	25	41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보완공사	-	366	-	-	366
한화종합화학	PVC 증설	1993-1995	623	18	273	332
	유리강화플라스틱	1993-1995	256	-	40	200
	옥탄올	1994-1998	1,049	-	12	40
삼성종합화학	SM 증설(20만톤)	1994-1995	690	-	50	410
	TPA 건설(25만톤)	1995-1997	2,000	-	-	415
	컴파운딩(2만5000톤)	1995-1996	199	-	4	103
	정밀화학 등	-	-	-	-	161
대 립 산 업	L-LDPE 공장 증설	1991-1994	510	172	338	-
	PP, L-LDPE 공장 증설	1994-1996	1,500	-	-	600
	폴리머 PILOT PLANT	1995	100	-	-	100
	RESIN공장 신설	1995-1997	650	-	-	96
코 오 롱 유 화	석유수지 생산능력증대	1994-1995	20	-	-	20
	폐놀수지 이 · 증설	1995	74	-	-	74
금호석유화학	카본블랙 프로젝트	1993-1996	788	76	18	523
	열병합발전	1995-1996	420	-	-	294
	Plastic compounding	1995-1997	67	-	-	35
LG석유화학	POWDER SILD 설비	1993	9	9	-	-
	SULFUR RECOVERY SYSTEM	1993-1994	25	8	17	-
	나프타 수입설비	1994-1995	41	-	23	18
	에틸렌 플랜트 최적화, 효율화	1994-1996	182	-	-	73
동 양 나 이 론	카프로락탐	1994	4,000	100	45	860
호남석유화학	신규사업용 부지매입	1994-1995	124	-	14	110
	EOA사업	1995	55	-	-	55
	HEG/SEG공장 설비교체	1995	47	-	-	47
	BULK 운송설비도입	1995	40	-	-	40
	HPP PLANT DCS화	1995	33	-	-	33
	HEG CATALYST 교체	1995	31	-	-	31
	POP 7호기 설치	1994-1995	20	-	1	19
	PP 신제품 기술도입	1994-1995	16	-	2	14
	SPP공장 설비교체	1995	14	-	-	14
	SPE공장 설비교체	1995	13	-	-	13
	EG공장 증설	1995-1997	750	-	-	100
	MMA공장 신설	1995-1997	750	-	-	50
고려종합화학	PX증설 (20만톤/년)	1994-1995	805	-	40	765
고려석유화학	PTA 증설(15만톤/년)	1995-1997	1,170	-	-	250
미 원 유 화	착색플랜트 증설	1994-1995	154	-	46	108
	연구소 건축공사	1992-1995	124	10	29	85
	전산화	1994-1995	40	-	3	37

한편, 설비투자과 더불어 석유화학 투자열기가 달아오르며 유공·대림산업 등이 95년 들어 공급과잉 여파로 미뤄왔던 증설을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되기 무섭게 신규투자 붐이 일고 있어 일부 품목에서의 과당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기초유분에서부터 계열제품에 이르는 갖가지 투자계획을 놓고 자체에서 생산

주요 석유화학기업 투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993					1994				
		1/4	2/4	3/4	4/4	계	1/4	2/4	3/4	4/4	계
당 초 계 획	현대석유화학	139	129	132	94	494	135	204	171	211	721
	한화종합화학	684	605	387	320	1,996	432	497	480	606	2,015
	삼성종합화학	117	140	152	174	583	268	178	325	216	987
	대 립 산 업	161	170	179	206	716	269	209	115	98	691
	코 오 롱 유 화	36	56	13	7	112	27	60	27	13	127
	금호석유화학	179	121	187	289	776	160	250	204	260	874
	L G 석유화학	61	59	60	59	239	46	47	47	47	187
	동 양 나 이 론	102	237	271	407	1,017	103	183	183	427	896
	호남석유화학	40	44	36	40	160	20	39	45	50	154
	동서석유화학	7	15	30	19	71	12	24	10	8	54
	고려종합화학		5		5	10		35	60	65	160
	고려석유화학			30	90	120	50	90	200	245	585
	미 원 유 화						60	88	134	80	362
합 계		1,526	1,581	1,477	1,710	6,294	1,582	1,904	2,001	2,326	7,813
투 자 실 적	현대석유화학	52	28	26	97	203	49	164	108	255	576
	한화종합화학	601	533	432	367	1,933	293	300	378	410	1,381
	삼성종합화학	83	96	104	117	400	250	167	178	217	812
	대 립 산 업	218	217	251	219	905	283	180	105	58	626
	코 오 롱 유 화	37	55	26	21	139	25	47	39	18	129
	금호석유화학	40	45	33	32	150	79	60	89	70	298
	L G 석유화학	59	43	35	33	170	65	40	35	22	162
	동 양 나 이 론	57	28	32	43	160	7	13	15	41	76
	호남석유화학	10	30	30	41	111	20	39	45	46	150
	동서석유화학	10	12	20	10	52	7	23	11	13	54
	고려종합화학		5		5	10				40	40
	고려석유화학			30	84	114	50	85	223	232	590
	미 원 유 화	22	42	48	63	175	53	17	51	119	240
합 계		1,189	1,134	1,067	1,132	4,522	1,181	1,135	1,277	1,541	5,134

되는 기초유분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직계열화체제 구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관계자들은 계열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초유분 증설을 추진하겠다고 하며 더 이상 투자를 미룰 수 없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 여천공단에는 호황에 힘입은 공장 신증설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한화종합화학이 3월말부터 1100억원을 투입해 9만톤 규모의 옥탄올 공장을 착공할 계획이며, 대림산업도 3월말경부터 1500억원을 들여 현재 연산 10만톤 규모의 LLDPE공장을 연산 20만톤으로 늘리며 연산 16만톤 규모의 PP공장을 26만톤 규모로 증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산업은 연산 70만톤규모로 국내 최대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보유한 기초유분 공급여력이 많은 기업으로 이번의 대대적인 범용 합성수지 증설도 94년 3/4분기이후 PP 등 범용수지의 국제적인 증가에 따라 기초유분인 에틸렌의 자체공급을 바탕으로한 수직계열화를 이루기 위한 것 때문으로 풀이된다.

호남석유화학은 95년 상반기에 750억원을 들여 현재 20만톤 생산능력의 MEG(모노에틸렌글리콜)공장을 32만톤으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LG MMA는 1500억원을 투자해 연산 4만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8만톤 규모로 늘릴 것으로 알려졌는데 96년 상반기에 5만톤으로 늘린 후 98년까지 단계적인 증설을 실시, 총규모 8만톤을 달성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공은 94년의 4200억원의 3배인 1조3000억원을 투입, 울산공단에 제2의 PE, PP 공장을 건설해 윤활기유 사업에 신규참여하는 등 사업구조의 고도화 및 다각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유공은 석유화학경기 호조에 따라 총 1800억원을 들여 연산 12만톤 규모의 HDPE와 10

만톤 규모의 PP 등 제2합성수지공장 건설을 비롯, 5000억원을 투자해 경질유 수요증가에 대비 일산 6만배럴 규모의 탈황시설과 5만배럴 규모의 중질유 분해시설 건설에도 본격 참여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간원료의 생산에만 치중했던 동부화학이 95년부터 NCC, BTX(벤젠·톨루엔·자일렌) 등 석유화학원료사업에 신규진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부화학은 오는 2000년까지 2조원을 투입, 종합화학기업으로 도약하려는 중장기 경영계획 발표를 통해 대대적 신규사업 진출계획을 마련, 95년 2600억원인 매출액을 오는 2000년에는 3조2000억원으로 12배가량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투자부문을 보면 NCC·ABS 등에 6600억원, SM증설 등 석유화학부문에 4000억원 등이며 도료·안료 등 Chemicals부문에 5000억원, 석고보드 등 건자재 사업에 45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동부는 이 계획이 마무리될 경우 NCC에서부터 스티렌계 수지에 이르는 수직계열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석유화학투자지침이 조기해제될 움직임이 없어 NCC 진출시기는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종합화학은 95년들어 폴리에스터의 주원료인 TPA공장증설과 더불어 파이프 등 다양한 용도의 PVC공장 건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종합화학이 연산 15만톤 규모의 PVC공장과 15만톤 규모의 VCM공장을 97년말에 완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약 2000억원을 투자해 PVC의 원료인 VCM에서 PVC로 연결되는 석유화학계열을 신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업계에서는 삼성이 94년 한국비료(삼성정밀화학)를 인수한 후 PVC소재의 기본물질 외에는 제품의 특성상 부가가치가 없어 결국 삼성종합화학의 다음 진출목표는 PVC가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 거취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5년 상반기 석유화학제품 가격은 94년말과 동일한 수준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94년 하반기의 경우 각국 석유화학공장사고에 따른 수요급증으로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폭등세를 보였으나 95년에는 각 공장들의 정상가동을 통해 수급불균형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5년초에 들어서면서 국내외 시장의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급에 있어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4년12월 이후 안정세로 돌아선 것처럼 보이던 수출가격도 일본 관서지진의 여파에 따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일제히 오름세로 돌아선데 이어 내수가격도 상승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관련기업에 따르면, 대한유화, 대림산업, 호남석유화학, 현대석유화학 등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95년 1월부터 NCC공장과 일부계열공장의 가동률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3~5월중 연차 정기보수에 들어감에 따라 석유화학제품의 공급량은 상반기까지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4년과 같은 폭등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정기보수에 따른 일시적인 가격상승은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석유화학협회 및 관련업계가 분석한 95년 상반기 석유화학제품가격동향을 보면 기초유분의 경우 94년 하반기 톤당 560달러까지 올랐던 에틸렌이 95년초에는 500달러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프로필렌은 545~555달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합성수지의 경우에는 SM가격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PS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대만·홍콩의 스티렌계제품 비수기로 95년1월 선적분의 수출가격이 톤당 1020~1030달러로 94년말 1200달러에 비해 크게 떨어졌으나 1/4분기를 지나며 수출경기가 호전되면서 가격도 정상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4년 11월까지 톤당 1500달러를 웃돌던 ABS도 최근 수요감소로 약세를 보이고 있어 3월을 지나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석유화학 불황 극복 위해 기업합병 활발

일본시장도 SM설비 증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통산성이 집계한 94년8월

말 기준 주요 석유화학제품 및 유도품 생산능력에 따르면 PP는 93년 256만8000톤에서 94년 258만 1000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생산능력은 出光石油化學이 24만톤에서 24만5000톤으로 2.1% 증가했고, 千葉PP가 7만 2000톤에서 11.1% 증가한 8만톤으로 집계됐으며 나머지 기업들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SM 전체 설비는 256만8000톤에서 297만6000톤으로 20.1% 증가, 최근 SM수급이 타이 트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증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별로는 93년말 가동을 시작한 千葉SM(電氣化學- 住友化學의 합작사)이 연산 2만5000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었으며 94년봄 가동에 들어간 三井東壓化學이 24만톤 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AN의 94년 생산능력은 93년과 동일한 60만7000톤으로 집계됐다. SM 설비가 증가한 반면 PS는 93년8월 135만6000톤에서 94년 동월에는 135만1000톤으로 5000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日本PS의 5만8000톤 생산설비 가동중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 이 기업은 昭和電工과 住友化學이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新日鐵化學은 9만6000톤에서 14만6000톤으로 5만톤, 電氣化學이 15만4000톤에서 16만4000톤으로 1만톤, 三井東壓化學이 11만3000톤에서 13만톤으로 1만7000톤을 증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大日本인크化學은 11만6000톤에서 9만5000톤으로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합성고무 생산능력은 BR의 경우 93년8월 28만1000톤에서 94년동월 7.4% 증가한 30만 2000톤이고, SBR은 93년 62만4000톤에서 62만5000톤으로 1000톤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EO는 三菱油化가 4만톤을 증설해 전체 생산능력이 92만4000톤으로 늘어났으며, 아세트알데히드는 協和油化가 6만3000톤에서 6만2000톤으로 1.6% 감소해 전체적으로 1000톤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95년1월에 고베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플랜트의 가동이 일시 중단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었으나 일부 설비를 제외하고는 곧바로 정상가동에 들어가 조업활동이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본 석유화학업계에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간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4년10월 미쓰비시화성과 미쓰비시유화가 미쓰비시化學이란 이름으로 합친 것이 계기가 되어 95년 2월들어서도 昭和電工과 日本石油化學이 합병을 통해 폴리올레핀사업을 통합키로 했다고 밝혀 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두기업의 결합은 업계의 판매체제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5년 수출·내수 모두 10%대 성장

95년 석유화학시장은 투자자유화에 따라 합성수지 등 원료의 공급과잉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합성원료는 여전히 공급부족현상이 지속되는 등 구조적 수급불균형이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협회가 집계한「95년 석유화학제품 수급전망」에 따르면 95년 합성수지 공급과잉 물량은 94년의 219만톤보다 31% 증가한 289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기업들은 국내시장 공급후 남은 물량을 수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95년 석유화학제품 국내수요는 11%정도 성장이 예상되며 수출도 동남아시아의 지속적인 호조에다 국내기업들의 생산능력 확대에 따라 10%정도의 성장이 점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90년이후 석유화학분야 신규투자를 자유화한 이후로 삼성과 현대를 필두로 각 기업들간의 과다한 투자경쟁으로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나 쏟아져 나오는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과당경쟁을 벌였다. 이것은 내수 뿐 아니라 수출시장에서도 계속돼 93년까지 7000억원이라는 적자로 인해 국내 최대 합성수지기업이던 대한유화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그러나 94년8월이후 미국·유럽 등의 가동중단 사태로 급반전되기 시작한 경기회복으로 가격이 치솟으며 국내기업들은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유화로 인해 국내기업들은 심한 몸살을 앓았지만 이로인해 국제경쟁력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정부가 95년초에 조기폐지키로 했던 석유화학투자지침을 95년말까지 유보키로 하고 기술도입신고제도도 신고대상을 축소시키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95년 석유화학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5/4/17>